優秀한 文人발굴 백일장 대회 개최

포천문인협회 초·중·고 학생 및 대학·일반시민 대상

포천문인협회는 9월26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제7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중희)는 9월26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제7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잠재되어 있는 문학의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문인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며 참가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시민 등이다.

운문과 산문 두 종목으로 나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 대회를 개최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시상은 입상 등급에 따라 실시하며 훈격은 ▶포천시장 ▶포천시의회의장 ▶경기도포천교육장 ▶포천예총회장 ▶포천문인협회장상 등이다.

또한 장원이나 다수의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 2명을 선정해 포천시장 또는 경기도포천교육장 표창을 실시하며 입선작품은 '포천 글사랑' 책자에 수록할 예정이다.

심사는 포천문인협회 소속 교수 및 등단 작가들로 구성해 엄정심사하며 시상식은 10월중에 포천여성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백일장 대회관련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포천문인협회 김선진 사무국장(010-2788-3570, sjkim2415@hanmail.net), 이중희 회장(016-309-5400), 포천예총(031-531-8181, 전송 031-532-8240)으로 하면 된다.

한편, 포천문인협회는 이에 앞서 9월24일 오후 2시에 포천문학 제10집 출판기념회, 시낭송회를 개최하고 시화전은 9월24일 오전10시부터 9월27일 오전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소리 맥 잇는 학생들 공연 돋보여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제5회 정기공연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9월3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김영오 포천메나리 부회장의 사회로 경기12좌창 유산가, 사물놀이, 태평가, 창부타령, 놀량,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노래가락, 청춘가,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금강산타령, 개성난봉가, 오돌독, 사발가, 양산도,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잦은 뱃노래 등을 선보였다.

박영실 지부장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올해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한 여름 무더위에도 공연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박영실 지부장의 노고가 돋보인 공연이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13

내가 하루를 살면 일본에는 하루의 근심이 있을 뿐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는데, 가슴에 검은 점 일곱 개가 있어 어렸을 때 이름을 응칠이라 했다.

1909년10월26일, 조선총독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대장대신과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했을 때 권총으로 그를 저격하였다. 이토가 총탄을 맞고 쓰러지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 자리에서 안중근을 체포하였다. 그때 안중근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도망갈 사람인가?"

그는 러시아 재판소에 수감되었다가 여순에 있는 일본 관동법원으로 이감되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과의 합병을 기뻐한다고 세계 각국에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조선인들의 반발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법원장 마나베(眞鍋十藏)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카이 기메(境喜明)와 소노키 지로(園木次郎) 등을 감옥으로 보내 안중근을 설득하도록 했다.

"너는 아직도 일본의 원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면 일본은 반드시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러자 안중근은 웃으며 대답했다.

"죽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내가 구차하게 살려 했다면 어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려 했지만 안중근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해 12월,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많은 돈을 모금하여 보냈다. 가족들은 영국인 더글러스와 러시아인 미하일로프, 그리고 한국인 안병찬을 변호사로 선임했으나 일본 법원은 이들이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인 미즈노(水野吉太郎)와 가마타(鎌田政治) 등을 관선변호사로 선임했다.

이듬해 정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나 안중근의 태도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는 일본에게 적장(敵將)으로서 사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를 형법상의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는 일본의 침략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낱낱이 성토했다. 일본 법원은 사건이 더욱 확대될 것을 꺼려하여 다시 한 번 회유를 시도했다.

"너는 곧 사형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세계의 정치상황을 잘못 알아 저지른 실수라고 말한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단 하루만 살아도 너희 나라에는 하루의 근심이 있을 뿐이다. 진정 누가 옳고 그른지는 천하에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다."

안중근은 끝내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감옥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동지들이 갇혀 있었다. 그 중에는 더러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가 되어 스스로를 왜 그리 초라하게 만드는가?"

어느 날 안중근의 죽음을 예감한 동생 정근(定根)과 공근(恭根)이 찾아와 말했다.

"다음에 면회 올 때는 형수님과 조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중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구차하게 어찌 처자식에게 미련을 두겠는가?"

마침내 안중근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 형을 선고받은 뒤 그는 두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죽어도 일본이 통치하는 땅에는 묻히지 않겠다. 그러니 하얼빈 공원 옆에 묻었다가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윽고 3월26일, 안중근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그의 나이 32세로 아들 둘이 있었다. 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정은 그의 시신을 감옥 안에 매장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던 2백여 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마셨으며, 밤마다 코를 골며 날이 밝을 때까지 태평하게 잠을 잤다.

처형되던 날, 그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웃으면서 처형장으로 향했다. 그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영국인 더글러스는 그가 처형된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안중근 같은 사람은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소. 돌아가면 마땅히 그의 이름을 세상에 기리겠소."

안중근(安重根)
1879년(고종 16)~ 1910년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어려서는 응칠(應七)로 불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해외 망명을 결심하고 상해에 잠시 머물다 이듬해 귀국했다. 1906년 석탄상회를 경영하다가 정리한 뒤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설립하고, 곧이어 남포(南浦)의 돈의학교(敦義學校)를 인수하여 학교경영에 전념하였다.

1907년 북간도로 망명한 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청년회에서 일하며 이범윤(李範允) 등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의병을 조직하고 대한의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무장투쟁을 벌이다 탈출한 뒤 흑룡강 상류를 오가며 이상설(李相高), 이범석(李範奭) 등 애국지사를 만났다.

1909년 열두 명의 동지가 모여 단지회(斷指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李完用)의 암살을 계획하였다. 마침 그 해 9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코코프체프 대신과 회동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것을 알고 우덕순(禹德淳), 조도선(曺道先), 유동하(劉東夏) 등과 저격계획을 세웠다.

1909년10월26일, 하얼빈에서 이토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세 발을 명중시켰다. 그곳에서 체포되어 관동지방법원에서 여섯 차례의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과정에서 그의 태도는 일본인 재판장과 검찰관들도 내심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10년2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사형을 언도 받고 3월26일 오전 10시 여순(旅順)감옥 형장에서 순국하였다.

〈011-242-1975〉

뮤지컬 이야기 #61

1950년대 뮤지컬 개요-할리우드(Hollywood)

1950년대 전반에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McCarthyism)은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이었다. 할리우드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매카시즘의 광기는 브로드웨이에서 경험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공산당원 이었거나 친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린다고 생각되는 모든 영화 관련 인들을 색출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영화인들은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영화 스튜디오들은 의심을 받은 배우나 감독, 스탭들을 쓰기 꺼려했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극우파의 매카시는 미국 내의 분위기를 보수 성향으로 몰아가며 좌익성향을 띄거나 극도로 진보적인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할리우드에서 축출했다. 그 결과 영화의 제작편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더욱이 텔레비전 보급으로 영화관객이 감소하면서 뮤지컬 시장에 공황을 가져왔다. 텔레비전에서 뮤지컬을 방영하면서 뮤지컬 영화시장은 마침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영향은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할리우드는 뮤지컬 영화사상 최고의 명작들이 발표되었는데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경향도 생겨났다. 1950년대 할리우드의 뮤지컬은 다음의 네 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1940년대부터 인기를 얻었던 스위밍 뮤지컬들(Swimming Musical). 미국 수영선수 출신인 에스더 윌리엄스(Esther Williams)를 기용해 만든 뮤지컬로 모든 장면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촬영되었고 1950년대 까지도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는 싱크로나이즈 수영과 수중 발레는 당시에 이미 영화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물속에서 완벽하게 안무화된 코러스 걸들을 출연시켜 새로운 뮤지컬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40년대 개봉된 〈목욕하는 미인(Bathing Beauty, 1944)〉을 시작으로 〈백만 달러 인어(Million Dollar Mermaid, 1952)〉 등에서 선보인 물속발레 장면들은 촬영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객들에게 새로운 뮤지컬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다.

둘째,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의 영화화.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의 브로드웨이 히트작인 〈오클라호마(Oklahoma, 1955)〉, 〈왕과 나(King & I, 1956)〉, 〈남태평양(South Pacific, 1958)〉 등이 영화로 만들어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리메이크 버전 〈쇼 보트(Show Boat, 1951)〉가 다시 한 번 뮤지컬로 제작되었다.

셋째, 오리지널 영화버전 뮤지컬들. 뮤지컬 영화의 최고로 손꼽히는 〈파리의 아메리카인(American in Paris, 1951)〉,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 in the Rain, 1952〉 등이 제작되었고 1937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뮤지컬로 리메이크한 〈스타탄생(A Star is Born, 1954)〉과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1954)〉, 그리고 〈화니 페이스(Funny Face, 1957)〉, 〈지지(Gi Gi, 1958)〉 등 명작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넷째, "로큰 롤의 제왕(The King of Rock 'n' Roll)"으로 일컬어지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의 영화들.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 1956)〉, 〈러빙 유(Loving You, 1957)〉, 〈제일 하우스 록(Jail House Rock, 1957)〉 등이 영화로 만들어져 인기를 얻었고 곧바로 음반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수로 출발해서 인기를 얻을 후 영화나 TV 등으로 옮겨 겸업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다. 가수로 성공한 아이돌 스타들을 연예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 지는데 1950년대 엘비스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섹시하고 특이한 외모로 청춘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하며 로큰롤의 황제에 오른 엘비스를 영화사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다. 특히 뮤지컬 시장을 MGM에게 빼앗겼던 20세기 폭스 영화사나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시장점유를 위해 엘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영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냈다. 그 결과 엘비스와 그의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들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엄청난 음반판매고를 기록했다. 어느 청춘스타들도 엘비스만큼의 성공을 구가하지는 못했다. 엘비스는 1960년대까지 무려 31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특히 전성기에는 자동화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영화를 한꺼번에 몰아서 찍기도 했다.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관객들은 개의치 않고 극장으로 몰려들었으며 스크린에서 엘비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열광했다. 특히 10대들이 관객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영화의 새로운 관객층을 개척한 공로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하이 틴 시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들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그 성공의 요인으로는 영화의 히트와 싱글앨범의 히트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엘비스는 영화와 음악의 공존이 가능함을 입증시켜 주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뮤지컬 시장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에서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명작들이 나온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50년대 뮤지컬 영화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가 있는데 스위밍 뮤지컬들을 아직 국내에 출시되어 있지 않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돌팔이 예술쟁이 (1)

사람은 나뭇잎을 본 따 옷을 짓는다. 어느 날에는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이상의 깃발을 펄럭인다. 동트는 새벽까치의 울음을 따 사람의 안부를 물어가며 설거지를 한다.

이 땅은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여러 가지 예술적 행위를 통하여 해가 뜨고 달이 진다. 이러한 것들이 창작의 소재와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과도 따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눈과 주먹과 언어이다. 눈이 곧 세상을 향한 창이며 주먹은 느낌의 미닫이다. 귀는 열려도 눈을 뜨지 않으면 소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소리의 맛은 혀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감상하고 해체한다.

소리의 맛은 음악과 요리의 방법처럼 언어로 풀어내고 해역(解繹)하는 것이 문장의 수사(修辭)이며, 감성과 사물을 디자인(Design)하는 것이다. 지금도 허기진 사타구니로 질긴 힘살을 반죽하여 새끼를 낳고 또 여러 욕망을 널름거리며 살아간다. 노을에 젖은 도끼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찍는다.

생각의 새떼는 천정을 뚫고 날아간다. 사회적 계약은 떨어진 깃털은 주우며 칼도마에 밤꽃냄새를 다듬는다. 불을 긋고 아침을 양념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삶의 구체적 가락이며 꿈이다. 인간의 궁극적 연극의 무대는 자연이자 신발을 신고 벗는 그곳이다. 바로 교통의 정류장과 노동의 밥상과 마주하는 현장이다. 사람은 늘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그중 문인의 작품 활동은 인간의 약속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학적 품삯일 뿐 금이 간 일과표의 땜질이 아니다.

"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다"고 했다. 혹자 지금의 시인은 모가지에 명찰을 매단다. 너무나 흔해 빠진 타성이 되었다. 시인은 어느 일간지 지면 채우기 백일장에 뽑혀서도 아니고, 이런저런 문예지에서 운전면허 따듯이 박수를 받는 수험표도 아니며, 설익은 언어를 포장해서 시중에 팔러 다니는 돌팔이 장사꾼이 되어서도 안된다.

더구나 가슴살 한 첨 떼어 주고 인기와 바꾸는 것도 아닌 일이며, 일벌이 찜해 놓은 물 한 바가지 떠 주는 짓도 아닌 것이다. 또한 빨래한 시 한 편을 다리미질해서 구겨진 상장과 바꾸는 물물교환도 아니다. 게다가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얼굴을 닦는 화장지도 아니고, 심심한 거리의 자판기 커피 잔이 되어서도 안된다.

시인은 자신의 걸음걸이를 냉철히 확인하여 날선 언어로 세상의 암 덩이에 매스를 대야함이 아닌가. 세상살이 이러쿵저러쿵 하늘에 삿대질해서도 안된다. 더욱이 어두운 술잔에 기대어 제집을 허물고 헛소문을 안주 삼아 까먹고 앉아 예술가의 흉내나 내는 골빈 초상은 이제 아니다. 소위 예술을 정치하는 사람은 똥 묻은 신발을 갈아신고 푸른 낫질로 새 길을 내야 한다.

〈010-3722-5052〉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6)

시인·효자(詩人 孝子) '구방준(具邦俊)'

조선 선조조 '39년(1606년)~숙종15년(1689)' 포천에서 태어나 살았으며 일동면 화대리 고마동에 묻힌 효자이자 시인이었던 '도해정(蹈海亭)' '구방준(具邦俊)' 님을 만나 보기로 하자.

님의 자는 '석보(碩輔)' 이고 호는 '도해정(蹈海亭)' 이고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조선시대 학자로 문집인 '도해정집' 에 성리학자인 유중교(柳重敎)가 '도해정구선생사실기(蹈海亭具先生事實記)' 를 쓰고 '김평묵' 선생께서 발문을 지어 게재 할만치 유명한 선비였다.

5세 때, 모친상을 당하고 12세 때 충의위(忠義尉)로 봉직 중이던 부친이 간신 이이첨의 무리에게 화를 입어 유배지에서 별세하는 등, 불행한 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형님인 수준(秀俊), 우준(迂俊)과 함께 학문에 힘쓰며 가업(家業)에 종사하였다.

청운(淸雲)의 꿈을 꾸지 않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벼슬자리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뜬구름 같은 세상살이를 오직 효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것이다.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기원하였다. 그 소원은 40세 되던 해 이루어진다.

꿈속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 와 백발 노인으로 변하여 '내가 너의 자모(慈母)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루만지자, 서로 부등켜 안고 통곡하다가 깨었다. 이에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곡(思母曲)인 '몽리봉모부(夢裏逢母賦)' 를 지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꿈속에서 만나 뵈운 내 어머니의 노래' 인 것이다.

'조실부모(早失父母)' 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80평생을 소의(素衣:흰옷)로 살았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인조14년:(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온 가족이 강원도 통천에 피란 하였다. 호란이 끝난 후에도 이곳 통천에 살면서 도해정(蹈海亭)이란 정자를 세우고 후학들에게 '성경현전(聖經賢傳 성인들의 경전과 훌륭한 선비들의글)' 을 읽는 학풍을 조성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한다.

'구방준' 님이 별세 후, 호란 피란지 통천 사람들이 효정(孝旌 효자정문)을 나라에 청원하는(유림들의 청원)바 여러 번 있었으나 은전을 받지는 못했다 한다. 일동면 화대리 고마동에 묻혔다. 표석(비석)에는 '도해정 구선생지묘(蹈海亭具先生之墓)' 라 씌였는데 묘지명은 이기홍(李基弘)의 글이다.

우리는 여기 구방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예부터 효자도 많고 열녀도 많은 고장이지만 구방준님 같은 효자가 요즈음 얼마나 있을까?

벼슬살이를 쫓아 뜬구름이 되어 떠돌며 가정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다같이 나를 돌아보기로 하자.

초대 漢詩

仲秋佳節(중추가절)

碧江 楊基成
용연서원 원장

仲秋佳節吉辰眞(중추가절길신진) 萬象森羅變化新(삼라만상변화신)
중추가절은 참으로 길한 날이며, 삼라만상이 새롭게 변화한다.

歲歲香煙供祭祀(세세향연공제사) 家家松餠獻酬親(가가송병헌수친)
해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베풀며, 집집마다 친히 송편과 술을 권하여 드린다.

傾心學習方賢士(경심학습방현사) 盡力農耕亦庶民(진력농경역서민)
현사는 또 학습에 마음을 기우리고, 또 서민은 농경에 힘을 다한다.

近戚他鄕平素遠(근척타향평소원) 多情協助自然隣(다정협조자연린)
가까운 친척도 타향에 살면 평소에 멀며, 이웃은 자연히 협조하며 다정하다.